



교모로 인해 수직고경이 감소된 부분 무치악 환자의 완전구강 회복 증례

박 지 만*, 장 익 태, 허 성 주, 곽 재 영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구치가 상실되어 대합되지 않으면, 환자들은 전치부로 저작을 하게 되며, 치주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전치의 전방 돌출 및 교합고경의 점진적 감소가 일어나며, 치주 상태가 좋은 경우는 전치의 계속된 마모로 수직고경의 감소가 일어난다. 교합고경이 서서히 상실된 경우 저작 근육 및 신경계는 변화된 고경에 적응하게 된다. 새로운 교합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직고경을 회복시키는 시도에 있어서 저작 근육과 신경계의 적응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합고경을 회복한 후 안정된 교합을 평가하고 심미적이며 기능적인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치료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65세 여자 환자로 상악의 좌측, 하악의 좌우측 구치부의 결손과 함께 잔존치 교합면의 심한 교모로 인한 저작 기능의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하악 전치부 및 대합치의 마모가 심하여, 강한 교합이 전치부에만 이루어지고, 사용하던 국소의치의 교합은 낮아서 교합지가 빠져나올 정도였다. 환자의 적절한 수직고경을 평가하기 위해서 안정위, 전치부 치아길이의 분석, 발음과 심미성 등을 평가해 4mm의 수직고경 거상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수직고경에서 진단 wax-up을 시행하여 stable한 전방유도와 대합관계 및 적절한 심미를 보이는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였다. 상하악의 모든 치아를 형성한 후 provisional restoration을 장착 후 6개월간의 follow-up으로 환자가 심미적으로 만족하고 기능적으로 적응함을 관찰하였다.

최종 PFG crown은 임시 수복물에서 확인된 적절한 수직고경, 전방유도, 교합평면과 가능한 일치되도록, pattern resin으로 제작한 bonnet crown과 기존의 임시 수복물을 이용하여 cross mounting technique으로 교합기에 부착하여 제작하였으며, 청소의 용이성으로 인한 치주조직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single crown으로 제작하여 수복하였다. 상하악 무치악부에는 가철성 국소의치로 수복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수복이 가능했기에 증례보고를 하는 바이다.